

나눔 문화 확산, 공정사회로의 변화를 기대!

성별 경험차이 반영한 나눔 활동 확산 방안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참여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여론 조사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생활체감형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생활체감정책단을 운영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조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사회 확산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나눔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 나눔 활동 여부 2) 나눔 활동 형태 3) 나눔 활동 동기 4) 나눔 활동 만족도 5) 나눔 활동 비동참 이유 6) 나눔 활동을 통한 기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봄.
- 2011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생활체감정책단 남녀(여성 600명, 남성 400명) 패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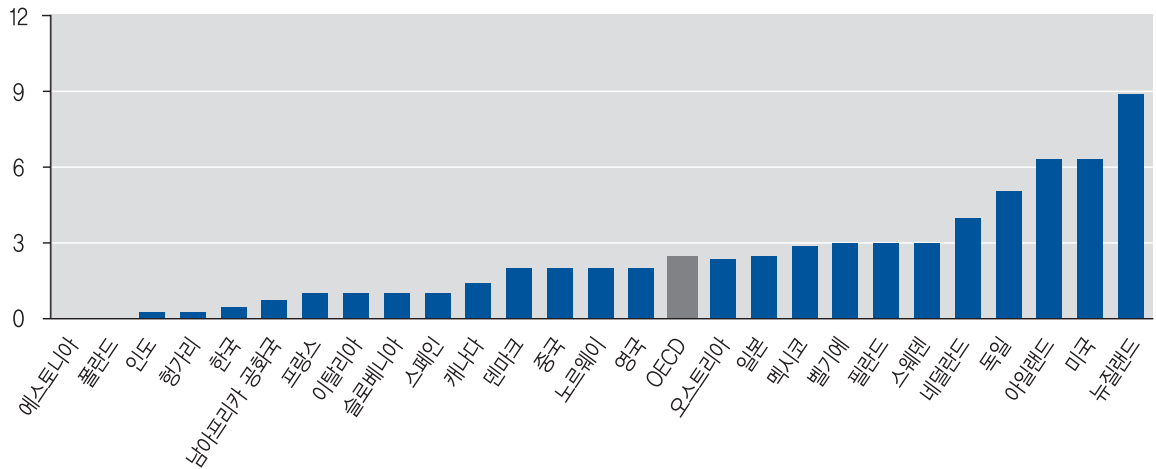
I. 나눔 실천, 공정사회의 기반

☞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해진 불평등 심화와 빈곤층 확대현상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사회를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내세움.

☞ 공정사회는 기회·과정·결과의 균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통합과 상생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임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제도의 재정비와 더불어 일상생활영역에서의 나눔·기부 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음.

☞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유·무형의 자원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은 일회적으로 도와주는 자선의 개념을 넘어선 공존·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생활방식이자 문화임
나눔은 돈, 물건과 같은 유형의 기부뿐 아니라 재능, 문화 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1) 생활체감정책단은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대표적 생활공감형 정책 사업임. 2010년에는 녹색생활 실천, 일·가정 양립, 한부모 가족 지원, 고령화사회 대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2011년 4월 현재 제2기 정책단 활동을 시작함.



* 출처: OECD(2011),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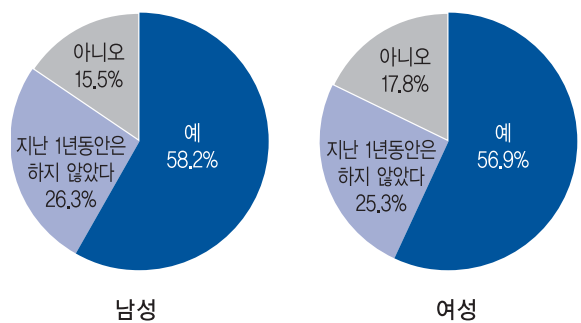
[그림 1] 인구대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

☞ 자원봉사활동은 최근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국제 지표가 삶의 질 영역을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비시장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에 할애되는 시간)’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 인구대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이 OECD 26개국 중 22위로 나눔 활동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 [그림 1].

☞ 나눔 문화는 공정사회 구현과 국격제고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계고리라는 점에서 이를 확산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83.1%가 나눔 활동 경험이 있음. 남성(15.5%)은 여성(10.6%)에 비해 ‘소속단체 및 모임을 통해서’ 나눔 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6.7%)은 ‘우연히 참가한 활동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경우가 남성(3.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 응답자 전체의 83.1%는 한 차례 이상 나눔 활동의 경험이 있으며, 남성은 84.5%, 여성 82.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2] 성별 나눔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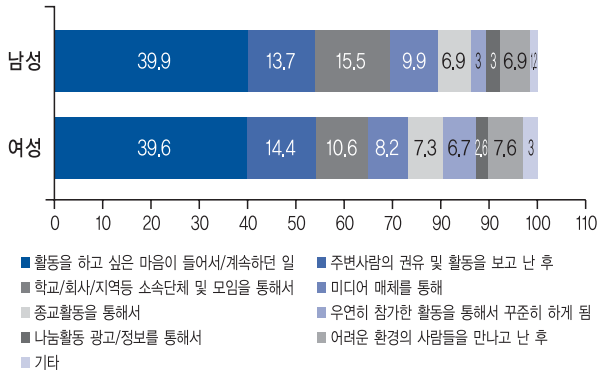
Ⅱ. 나눔 활동에 대한 성별 경험의 차이

이슈 #1

남녀 83.1%, 나눔 활동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 참여 동기 비율 높아

- 나눔 활동은 ‘주변사람의 권유’ (14.1%)보다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39.7%)와 같은 자발적 동기로 시작되는 경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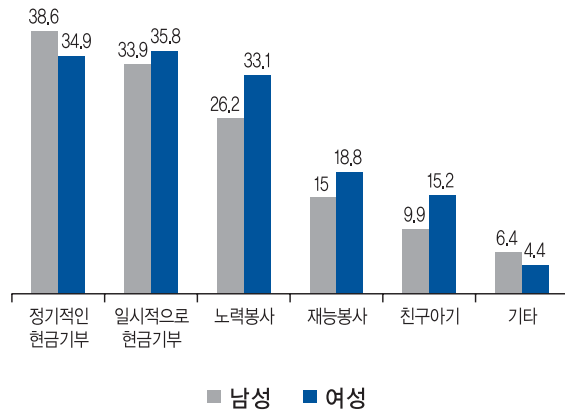
- 남성(15.5%)은 여성(10.6%)에 비해 '소속단체 및 모임을 통해서' 나눔 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남. 반면 여성(6.7%)은 '우연히 참가한 활동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경우가 남성(3.0%)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음.



[그림 3] 성별 나눔 활동 시작 동기

- 남성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기부'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일시적인 현금기부'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즉, 남녀 모두 현금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큼.

특히 여성은 노력·재능 봉사, 친구하기와 같은 직접 참여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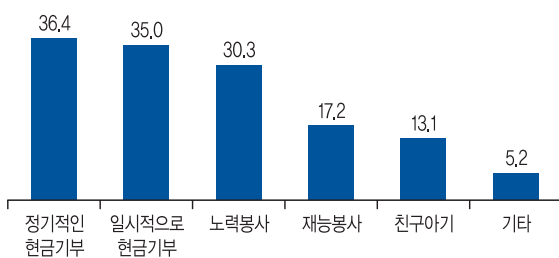
[그림 5] 성별 나눔 활동 형태(중복응답)

이슈 #2

노력·재능 봉사, 친구하기 등 직접참여 방식의 나눔 활동 비율, 여성(67.1%)이 남성(51.1%)에 비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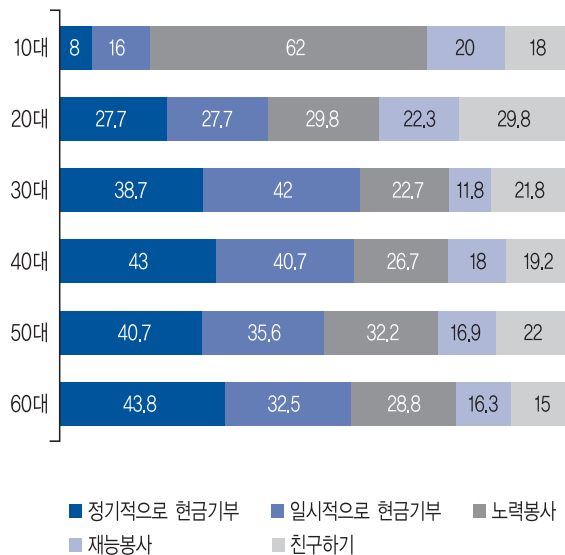
☞ 남성과 여성 모두 '정기적·일시적 현금 기부' 방식을 통한 나눔 활동을 선호함.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력 봉사', '재능 봉사', '친구하기' 등 직접참여 방식의 자원봉사 활동 비율이 높음.

- 나눔 활동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현금기부'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시적으로 현금기부' 35.0%, '노력봉사' 30.3%, '재능봉사' 17.2%, '친구하기'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중복응답).



[그림 4] 나눔 활동 행태(중복응답)

- 연령별 나눔 활동 역시 정기적·일시적인 현금 기부 비율이 높음. 하지만 10대는 현실적 문제로 현금기부 비율이 낮고, 대신 노력·재능 봉사의 형태로 실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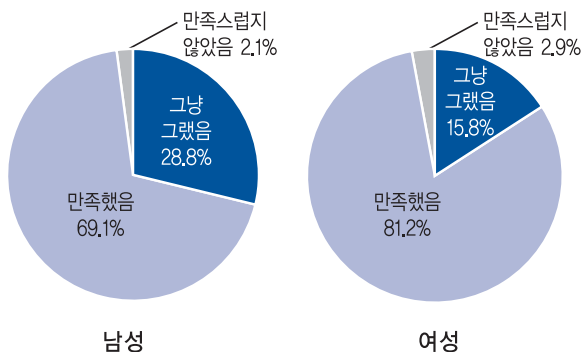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별 나눔 활동 행태(중복응답)

이슈 #3

나눔 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성이 더 높아.
나눔 활동의 불만족은 낮은 성취감과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부족이 주된 원인

☞ '나눔 활동 만족'은 여성(81.2%)이 남성(69.1%)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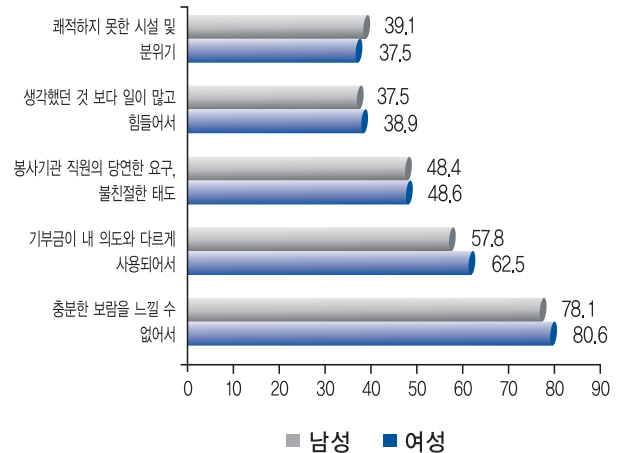
- 나눔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했음'의 응답은 전체의 76.3%임.
- 성별로는 남성의 69.1% 여성의 81.2%가 '만족했음'에 응답하여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음.



[그림 7] 성별 나눔 활동 후 만족도

☞ 성취감 부족,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이 나눔 활동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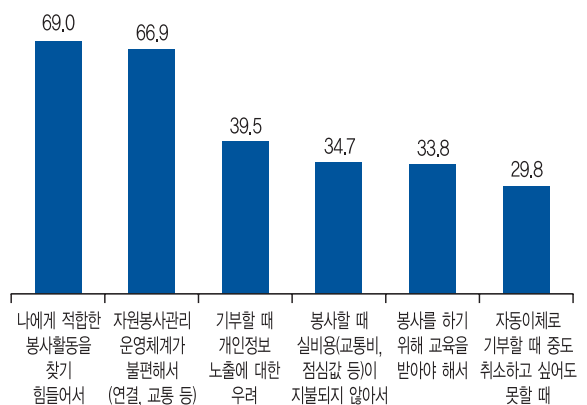
- 나눔 활동에 만족하지 못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질문한 결과, '충분한 보람을 느낄 수 없어서'가 79.4%, '기부금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어서'가 60.3%로 나타남(중복응답).
- 나눔 활동 불만족 이유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남녀 모두 정보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불만족 해결의 방법으로 보고 있음



[그림 8] 성별 나눔 활동 시 불만족 이유(중복응답)

☞ 봉사활동 관련 정보 제공, 관리·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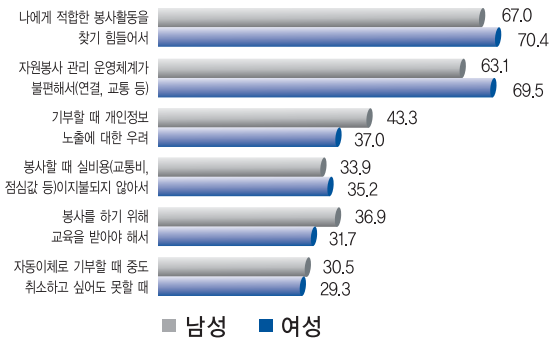
- 나눔 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나눔 활동 시 불편했던 점을 질문한 결과 69.0%가 '나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을 찾기 힘들'을 선택했음. 이어 '자원봉사 관리·운영체계 불편'에 66.9%, '기부할 때 개인 정보 노출 우려'에 39.5%, '봉사할 때 실비 비용이 지불되지 않음'에 34.7%가 응답함(중복응답).



[그림 9] 나눔 활동 시 불편했던 점(중복응답)

- 여성은 '나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을 찾기 힘들어서', '자원봉사 관리·운영체계가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기부할 때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봉사를 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해서 불편을 느끼는'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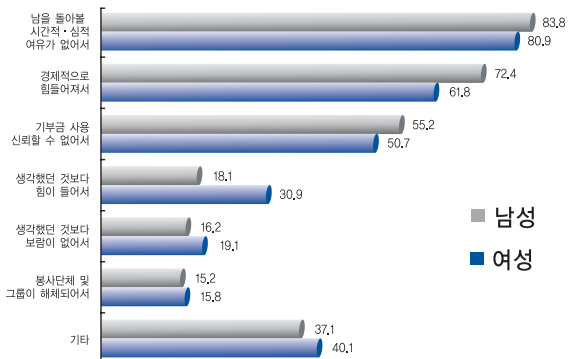
[그림 10] 성별 나눔 활동 시 불편했던 점(중복응답)

이슈 #4

나눔 활동 중도 포기, 남녀 82.1%가 시간적·심적 여유의 부족

☞ 나눔 활동을 중도 포기한 이유는 '남을 돌아볼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82.1%임

- 나눔 활동 경험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남성 105명, 여성 152명)를 대상으로 중도포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을 돌아볼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어서'에 대한 응답률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가 66.1%, '기부금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어서'가 52.5%로 집계됨(중복응답).
- 여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들어서(30.9%)', '생각했던 것보다 보람이 없어서(19.1%)'를 중도 포기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이에 반해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72.4%)'를 중도 포기의 이유로 응답함(중복응답).



[그림 11] 성별 나눔 활동 중도 포기 이유(중복응답)

☞ 나눔 활동 중단자의 재시작 의향은 92.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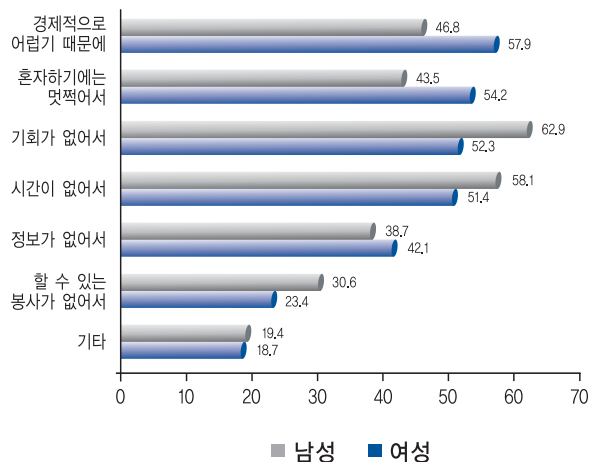
- 나눔 활동을 포기하게 만든 원인을 개선 한다면 '나눔 활동을 재시작 하겠다'는 응답률은 92.6%로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남. 이는 나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있을 경우, 나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나눔 활동 포기 원인이 개선 된다 하더라도 나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7.4%)한 가장 큰 이유는 '여유가 없음(42.1%)'으로 조사됨.

이슈 #5

나눔 활동 비동참 이유,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자 시작하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남성은 시간·여건 부족

☞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57.9%), 남성은 기회가 없어서(62.9%) 나눔 활동에 비동참함

-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57.9%)', '혼자하기에 멧쩍어서(54.2%)'에 대한 응답률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한편 남성은 '기회가 없어서(62.9%)', '시간이 없어서(58.1%)'에 대한 응답률이 여성에 비해 높음(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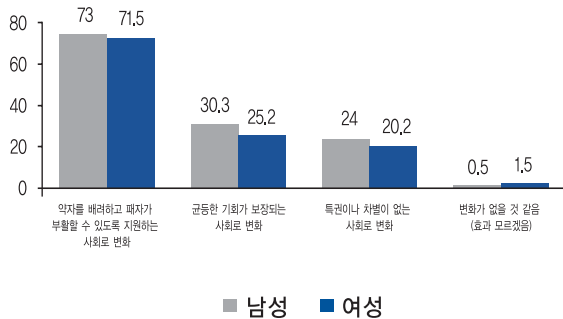
[그림 12] 성별 나눔 활동 비동참 이유(중복응답)

이슈 #6

남녀 72.1%, 나눔 활동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고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 기대

☞ 남녀 모두 나눔 활동을 통해 약자 배려, 기회 균등의 가치 회복을 기대함

- 나눔 활동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약자를 배려하고,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로 변화'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72.1%,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27.2%, '특권이나 차별이 없는 사회로 변화'에 대한 기대가 21.7%로 조사됨 (중복응답).



[그림 13] 성별 나눔 활동에 대한 기대(중복응답)

Ⅲ 나눔 문화 확산과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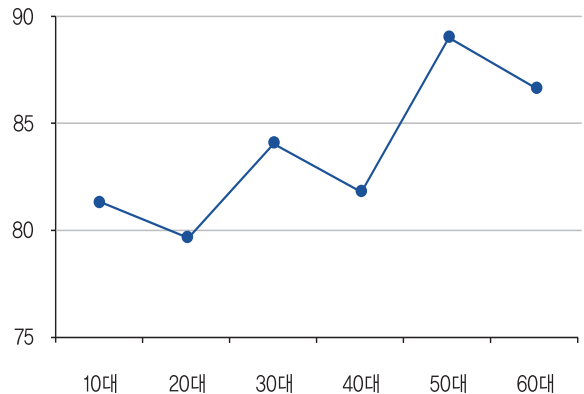
☞ 성별 특성을 고려한 나눔 활동 기회 제공

- 조사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유연히 참가한 활동을 통해 나눔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소속단체·모임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이러한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나눔 활동 홍보·유도

정책을 세워야 함. 우연한 기회에도 나눔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높은 여성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등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될 것임. 단체·모임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의 경우 단체 참여 나눔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킨다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생애주기별 나눔 활동 활성화 방안 필요

- 연령에 따라 나눔 활동 양상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나눔 활동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그림 14]. 교육과정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10대, 대학생활과 취업 준비로 나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20대, 취업 이후 개인적 차원의 현금 기부, 소속 단체·회사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기회가 많아지는 30대, 결혼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심적·경제적 여유가 줄어드는 40대, 비교적 높은 수입이 가능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50대, 은퇴이후의 60대 등 생애주기별 특수성을 고려한 나눔 활동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그림 14] 연령별 나눔 활동 여부

- 10대와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금 기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력·재능 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됨.
30대와 40대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동반 프로그램, 가족결연프로그램 등 나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은퇴를 한 고령인들이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카운슬링 등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활동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활동 지원방안 마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력 봉사', '재능 봉사', '친구 하기' 등 직접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높음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을 보여줌
신성장동력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자리매김하고 이에 여성의 인적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표 1〉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

- ▶ 자원봉사활동(용역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액, 인정영역, 인정범위 확대
- ▶ 자원봉사활동 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
- ▶ 자원봉사활동인정단체 지정을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국세청)과 연계 및 법인 세법시행령36조에 자원봉사활동관련 내용 추가
-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가동 및 e-통장 개설
- ▶ 자원봉사활동의 마일리지를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하고 자원봉사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마일 리지로 교육 훈련비를 지원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 나눔 활동을 통한 성취감 부여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나눔 활동에 성취감이 부여 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갖기 어려움.
또한 남녀 모두 나눔 활동 후 불만족의 원인으로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나눔 활동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은 '수혜자'가 다시 '기부'를 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지향하는 가치 라면, 투명성 확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임.

☞ 나눔 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나눔 활동의 중단 이유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음. 하지만 나눔 활동은 여유있는 영역의 일부를 떼어 주는 개념이 아닌 평등과 공존을 지향하는 생활 양식이자 문화임. 나눔활동이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정규과목으로 지정하고, 미디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한편 여성은 '생각했던 것 보다 힘이 들어서'와 같이 체력적 한계를 이유로 나눔 활동을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큼. 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여성 참여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일환으로 적재적소에 연결되는 나눔 활동이 진행되어야 함.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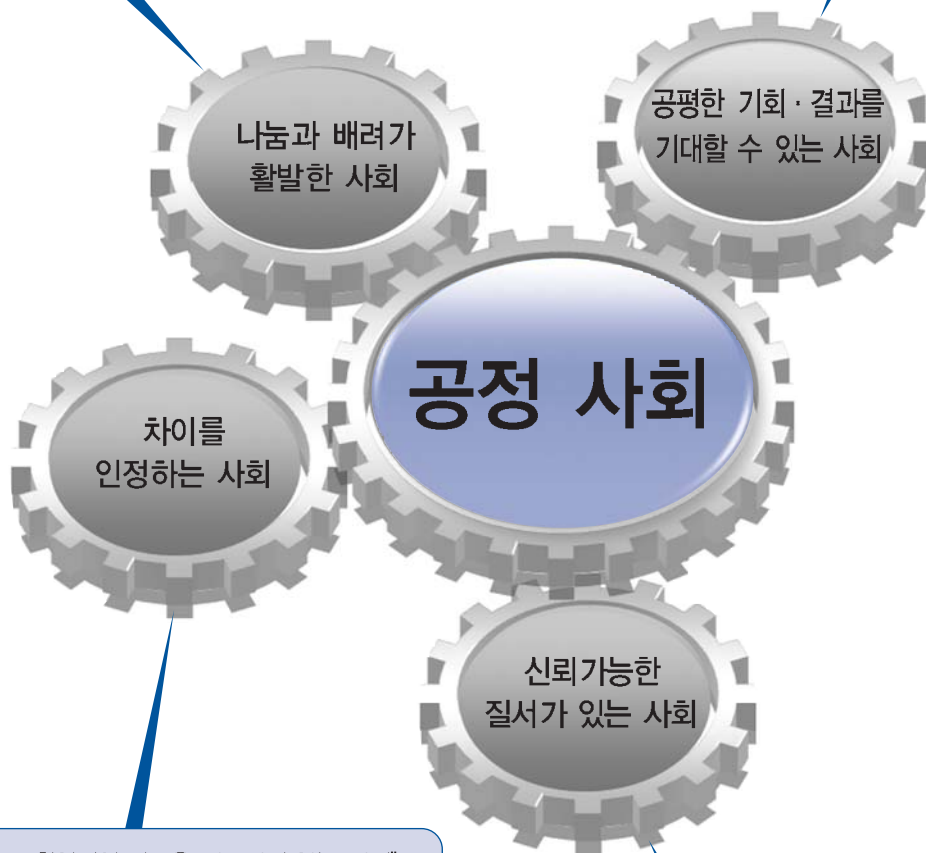
생활체감정책단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남녀가 평등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제2기 생활체감정책단은 4월 4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http://damanse.lightsurvey.net>)를 통해 조사한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이다.”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

- “이웃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약자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

- “노력하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
- “결과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사회”



- “개성을 존중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
-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존중해주는 사회”
-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 “선천적·후천적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가 있는 사회”
- “질서를 지켰을 때 손해보지 않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
-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정의가 통하는 사회”